

도대체 누가 법률실시를 파괴했는가?

하북성사하시파룬궁학원 장광재(张广才)가 공안기관에 의해 랍치된후, 이튿날 로동개조 1년 9개월이란 판결을 받았다. 가족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요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안건처리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법률실시를 파괴했는가를 살펴보자.

2010년 9월 20일, 사하시공안국국보대대 경찰들이 장광재가족들 몰래 아무런 증건도 제시하지 않고 장광재를 랍치했다. 장광재가족은 공안국에 가서 경찰들에게 《왜 사람을 가만히 붙잡아가도 집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가?》고 질문하자 국보대대 부대장 후수홍은 《장광재는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우리는 그를 붙잡아도 그의 가족에게 통보할 필요가 없다. 장광재를 붙잡을 때 그가 <파룬따파가 좋다.>고 외친것이 바로 죄증이다.》라고 궤변했다.

장광재가 파룬궁을 수련해도 여전히 중국국민인데 어찌하여 파룬궁을 수련했다고 해서 “다른 류형의 국민”으로 대하는가? 공안기관에서는 어찌하여 아무런 증건도 보이지 않고 마음대로 사람을 붙잡는가? 헌법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언론자유가 있는데 어찌하여 “파룬따파가 좋다.”고 한마디 외친것인 죄증이 되는가?

법률은 사람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는것이 사람의 신앙을 겨누는것이 아니며 헌법은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으므로 설사 사교를 신앙한다고 해도 법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으며 더구나 정법인 파룬따파를 신앙하는 것은 신앙자유이다.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해서 아무런 증건도 없이 무조건 붙잡는 것은 어디서 제정한 법률인가?

장광재의 로동교양결정서에 그가 사람에게 파룬궁재료를 제공하고 몇몇 파룬궁학원들과 파룬궁전단지에 대한 배포를 상의했다는 두가지 죄증을 렴거했다.

헌법은 국민에게 언론자유권리를 부여했다. 파룬궁재료를 제공한 것은 서면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달한 것으로서 이것은 합법이다. 헌법에는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파룬궁학원들이 전단지배포에 대해 상의한것은 한데 모여서 구두언어로 서로 교류한 것이므로 아주 정상적인것이다. 로동교양기관에

서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합법적권익을 죄증으로 삼는것은 바로 법률실시를 파괴한 것이 아닌가?

위임받은 변호사가 로교소에 가서 장광재를 면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로교소의 책임자들은 거절했다. 이렇게 변호사의 기본권리를 침범한 것이 그래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 아닌가?

장광재의 가족들이 소송장을 들고 형태시교서구법원에 가서 립안할 것을 요구했으나 행정관청에서는 아예 접수하지도 않고 질질 끌었다. 헌법소송에는 《법원에서 기소문을 접수한후 심사를 거쳐 7일내에 립안하거나 혹은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있다. 중공의 법관들이 파룬궁에 대해 립안하지 않는 것은 파룬궁학원의 소송권을 박탈한 것이며 공공연하게 국가법률을 짓밟은 것이다.

파룬궁학원들은 “쩨싼런”의 수련원칙과 《파룬궁학원들은 국가의 법률과 규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부님의 교시에 따라 보편적으로 마음이 선량해지고 도덕이 승화되어 전세계 정의인사들의 존경과 애대를 받고 있다. 중공악당은 국제사회의 견책을 받고 있으며 중공의 괴수들은 국제법정의 지명수배령을 받았다. 도대체 누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것은 파룬궁학원인 것이 아니라 곧바로 중공악당이다.

2010년한국법회가 원만히 결속

지난 10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한국법회가 원만히 결속되었다. 이 법회기간에 12명 파룬궁학원들이 자신의 수련심득체험을 이야기했다.



로마성을 진감한 파룬궁



지난 11 월 13 일, 유럽 파룬궁학 원 근 천 명이 이태리수도 로마에서 집회와

시위행진을 거행하여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전시했으며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를 견책했다.(윗사진) 몇몇 유럽동맹의원과 관원 및 로마성주석이 서함을 보내어 파룬궁의 반박해활동을 지지했으며 몇몇 정치요인 및 비정부조직책임자들도 친히 회장에 와서 지지를 표시했으며 파룬궁학원들에게 경의를 드렸다.

격진당창시자 테 파라선생은 《세계각지의 격진당은 영원히 파룬궁학원들과 함께 량지와 신앙자유를 위해 공동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미주고대문명국 페루에 전파된 파룬따파



남미주고대문명국 페루에 파룬따파가 전파되었다.

백석성에서 련공하고있는 페루파룬궁학원

2000 년 11 월, 페루시 시장 베크가 2000 년 11 월 20 부터 24 일까지 파룬궁주로 선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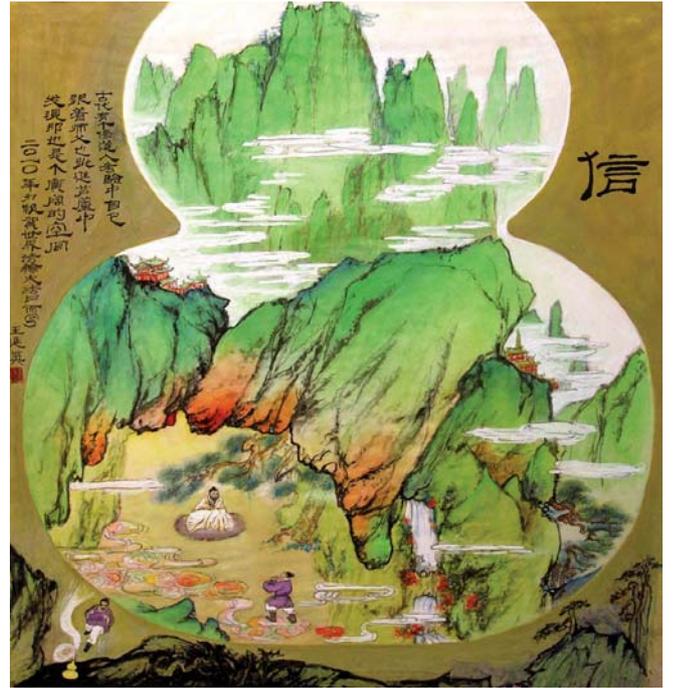
2001 년 5 월 23 일에 파룬따파학회를 성립했다.

2006 년 3 월, 도편, 서명, 서신 등 방식으로 민중과 정부를 향하여, 파룬궁생체에서 기관적출하여 고가로 판 죄장을 폭로하고 파룬궁진상을 이야기했다.

2010 년 7 월 20 일, 리마주재 중국대사관앞에서 초불추도회를 열고 중공의 박해로 사망된 동수들을 추모했고 중공의 박해를 제지할것을 호소했다.

2010 년 10 월 30 일, 페루제 8 기파룬궁심득교류회를 거행했다.

수채화 조롱박속의 세계



고대에 한 도를 닦는 사람이 사부님을 따라 조롱박속에 뛰어들어가 보니 역시 광활한 세계였다.

인어(人魚)와 해일

일본 8 중산군도 지역은 렉사상 해일의 습격을 받은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8 중산군도에서 생긴 것이다.



8 중산에 백보라고 하는 촌락이 있었다. 이 촌락의 한 어부가 바다로 나가 인어를 잡았다. 이 인어는 입을 열고 《난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래일 큰 해일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어부는 인침 배머리를 돌려 백보촌으로 돌아와 마을사람들에게 래일 해일이 온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이튿날 바다에 갑자기 큰 파도가 습격해오자 촌민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러나 해변가의 사람들은 해일속에 휘감겨들어갔다. 지난날의 백보촌은 황폐해졌다. 새로운 촌을 세우기 위해 고도, 흑도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바다가가 아니라 지세가 높은 곳에 촌락을 새로 세웠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백보촌이다.